



IPUS

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

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

▷ 보도일: 2012년 8월 13일

▷ 자료배포: <http://tongil.snu.ac.kr>

▷ 문의: 02) 880-4052~4, tongil@snu.ac.kr

▷ 연구책임: 박명규 원장

▷ 보도자료작성: 정은미 HK연구교수

<2012/13 남북통합지수 발표>

○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남북통합지수는 2008년 8월에 첫 발표된 이후 연 1회 발표되고 있다. 남북통합지수의 개발 목적은 남북한 통합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수화함으로써 통일이 정치적 통합 또는 당위적 결과의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사고되는 것을 넘어서보고자 한 것이다.

○ 남북통합지수는 총점이 1000점이며, 이중 구조통합에 750점, 의식 통합에 250점이 배점된다. 구조 통합은 다시 제도적 통합(270)과 관계적 통합(480)으로 배점이 나뉜다. 제도적, 관계적, 의식적 통합의 하위에는 공통적으로 정치, 경제, 사회문화의 세 영역이 존재한다.

○ 지난해까지 남북통합지수의 연도 표기는 지수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시점에 맞춰졌으나, 측정 데이터의 시점과 지수가 발표되고 영향을 미치는 시점의 불일치를 보완하고자 올해의 지수 연도 표기는 2012/13로 수정한다.

■ 2012/13 남북통합지수 197.6 (1000점 만점), 남북한 통합률 19.8%

- 2011년 195.6에 비해 2p 상승. 통합률 0.3%p 증가
- 4년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 2011년 바닥치기(bottom-out)를 하면서 2012년에 상승의 기반 얻음 (2008년 214.2→2009년 199.9→2010년 201.4→2011년 195.6)
- 구조통합지수는 하락했으나 의식통합지수의 상승으로 종합지수가 상승함. 구조적 관계악화 속에서도 주민들의 의식은 상호통합적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함

■ 경제, 정치, 사회문화 세 영역 모두에서 고른 상승이 2012/13 남북통합지수의 상승 이끌어냄

- 경제영역 통합지수 67.3으로 전년대비 0.7p 상승, 정치영역 49.2로 전년대비 0.1p 상승, 사회문화 영역 81.1로 전년대비 1.2p 상승함
- 관계통합지수에서 경제 영역에서 유일하게 소폭 상승(전년 대비 0.8p 상승)하였는데, 이는 남북관계가 극단적인 대치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을 매개로 한 남북경협이 유지되었기 때문

■ 구조통합지수는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,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한 교류협력의 감소가 주요 요인

- 2008년 90.6→2009년 79.4→2010년 76.6→2011년 71.4→2012년 68.8
-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제도적 통합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정체 상태이고, 관계적 통합수준 역시 대립적인 남북관계의 지속으로 5년 연속 감소세

■ 5년간의 의식통합지수는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반응하여 등락하나, 전체적으로 일정 수준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보임

- 2008년 123.7→2009년 120.5→2010년 124.8→2011년 123.7→2012년 128.8
-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지만, 120점대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
- 2012/13 의식통합지수 세 영역 모두에서 상승(전년대비 경제 1p, 정치 1.9p, 사회 1.7p 상승)
- 주요 요인: 2012년 군사적 대결이 소강상태에 놓이고 천안함·연평도 사건의 잔류효과가 줄어들면서 ‘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’, ‘상대방에 대한 적대감’의 항목에서 눈에 띄게 감소세가 나타나 전반적인 의식통합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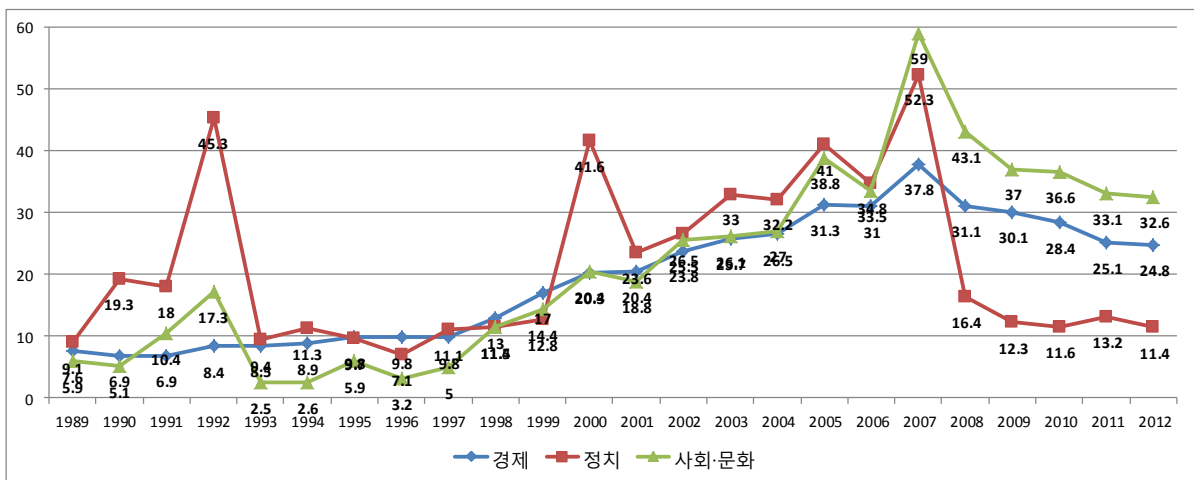
■ 구조통합에서는 사회문화 영역의 통합률이 우세, 의식통합에서는 경제 영역이 우세하게 나타남

- 전체 남북한 통합률(19.8%)을 영역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, 2012/13년 기준으로 구조적 통합(제도+관계통합)에서는 사회문화(27.2%)>경제(18.7%)>정치(10.3%)로 사회문화 영역의 통합률이 높음
- 그러나 의식통합에서는 경제(53.1%)>정치(47.3%)>사회문화(36.2%)로 경제 영역의 통합률이 가장 높음. 이는 북한사회에서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경제 영역에서의 의식통합률이 다른 영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

■ 통합단계는 경제, 사회문화 영역 모두 2단계, 정치영역 1단계, 4년 연속 같은 패턴 유지

- 남북통합지수의 통합단계는 0단계~10단계로 구성되어 있음.
- 1단계와 2단계 모두 교류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, 상대적으로 2단계가 1단계에 비해 접촉빈도가 높은 상태라는 차이점이 있음
- 남북통합지수 계측 시작 이래 최고의 통합단계를 나타낸 시기는 2007년으로 세 영역 모두에서 3단계에 이룸. 3단계는 정기적인 교류와 공동 협의기구가 구성되는 특징을 가짐

<그림>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



끝.